정읍의 맛·멋·경치…3미·6품·9경 ‘정읍보물’ 찾는다

관광 명소·특산품·음식 등 5월 6일까지 선호도 조사 후 최종 선정
새로운 관광 트렌드 찾아 홍보영상·리플릿 제작…관광 활성화 나서

정읍시가 지역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관광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읍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와 특산품, 음식을 아우르는 ‘정읍보물’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읍시는 맛(3味), 특산품(6品), 명소(9景) 분야에서 각각 대표 주자를 선정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자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읍보물’ 후보 제안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후보는 음식 46개, 특산품 54개, 관광명소 50개 시는 150개의 후보목록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우선 ▲10미(味) ▲18품(品) ▲21경(景)을 선정했다.

1차 선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3미·6품·9경’에 더 가까워지기 위한 2차 선정(6미, 10품, 15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전국민 선호도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조사는 최근 벚꽃축제 행사장과 정읍역, 시청 등에서 실시됐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설문지를 배포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정읍시 공식 소통방 설문조사와 공식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전국민 선호도 조사가 11일부터 5월6일까지 실시된다.

시는 이 온라인 조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며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후 2차 선호도 조사를 통해 압축된 후보 결과는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와 관광발전위원회의 심의라는 최종 관문을 거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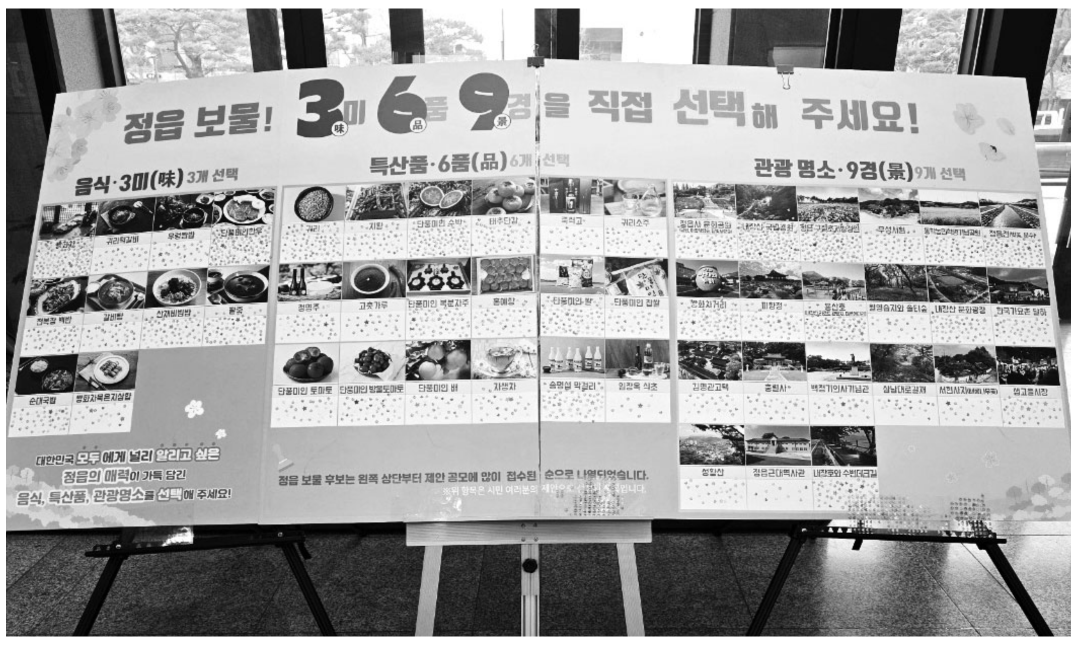
이를 통해 정읍을 대표할 상징적인 ‘정읍보물 3미(味)·6품(品)·9경(景)’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시는 최종 선정된 정읍보물을 전국에 알리고자 적극적인 후속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선정된 보물을 주제로 한 홍보영상과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춘 정읍보물의 선정은 정읍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정 과정과 결과를 통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정읍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와 특산품, 음식을 아우르는 ‘정읍보물’ 선정 작업. 〈정읍시 제공〉

남원시, 정신장애인 ‘재활교육’으로 사회 적응·복귀 돕는다

합창단 구성해 인식개선 등 진행

남원시보건소와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센터등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상생활 및 사회복귀를 돕는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을 회복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활 의지를 높이는 등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매달 대면방식 주 2회 운영되며 정신질환 증상에 따른 대처법, 재발예방을 위한 정신건강교육과 일상생활 기술훈련, 성취감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예술요법,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 획득 및 인식개선을 위한 합창단 구성 등이 진행된다.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교육을 진행 중이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박지영 센터장은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운곡람사르습지 사진공모전 참여하세요”

고창군, 7월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대상 200만원…10월 전시회도

고창군과 고창군생태관광주민사회적협동조합은 올해 ‘운곡람사르습지 사진공모전’을 7월까지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전은 ‘고창의 자연을 기록하고 마음에 잇는다’는 주제로 운곡람사르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운곡습지의 사계 풍경과 동식물을 담은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4점 이내의 작품 출품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해당 사진을 인화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 수상자는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2명 각각 50만원, 장려상 5명 각각 20만원이다. 입선작은 40명이다. 각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입상·입선작은 향후 운곡습지 사진집에 수록될 뿐만 아니라 10월 운곡습지전시회에 전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창군생태관광주민사회적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30만원 지원

5월 9일까지 신청…7월 중 지급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을 포함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공고일 이전 휴·폐업했거나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또는 유흥,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의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7월 중에 지급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경영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공공·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남원시, 6월 13일까지 진행

남원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오는 6월13일까지 관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10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시민이 참여해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활동으로 눈에 보이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를 살피는 종합 안전점검이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정밀점검 및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조치를 안내하거나 관철시까지 지도하는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농작물재해보험 10개 품목 확대

단호박 품목 5월 23일까지 신청
보험료 90% 지원…32.5억 편성

고창군이 ‘농작물 재해보험 군비지원 확대사업’ 가입 품목을 대폭 늘렸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신규 품목이 10개가 추가됐다. 품목은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생강, 참깨, 살구, 녹두다. 이 중 단호박 품목의 가입은 5월 23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군비 32억5000만원을 편성, 농가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한다.

앞서 심덕섭 군수는 민선8기 공약으로 “재해보험 군비 부담을 1년에 5%씩 높여 농가부담을 확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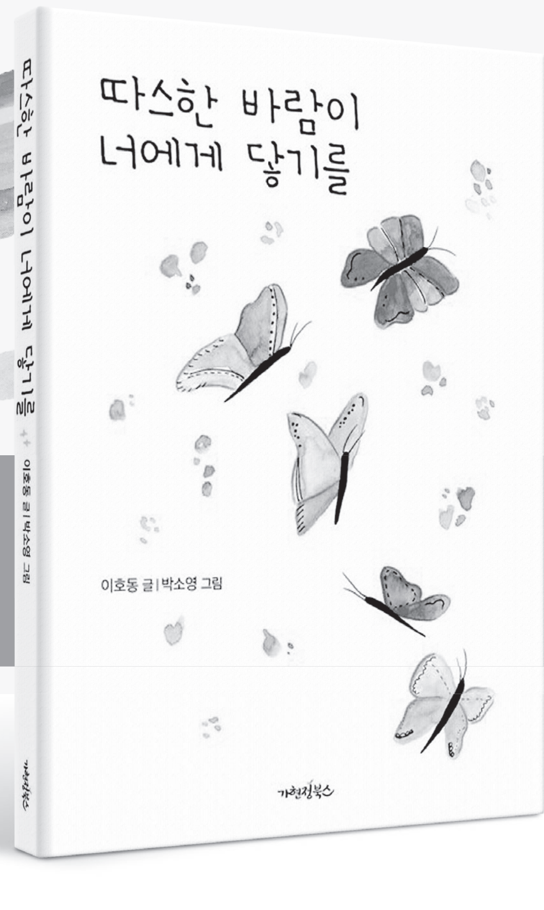
이에 따라 농가 자부담은 2022년 20%에서, 2023년 15%, 작년과 올해는 10%까지 낮아졌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장마, 이상저온,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과, 배, 단감(1월)을 시작으로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2월), 고추, 노지수박(4월), 복분자, 복숭아(12월) 등 80개 품목이 해당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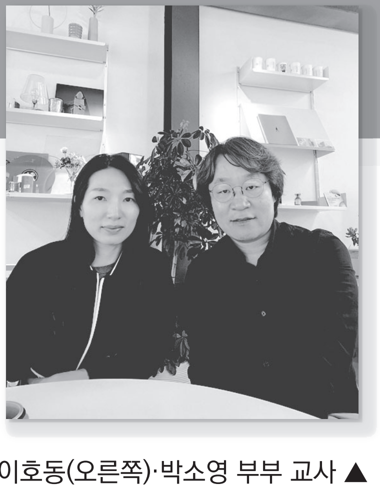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 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